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이 세상의 삶 성경: 고린도전서15장12-20절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15:12-20)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는 삶이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미 닥친 고난과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불안하고 슬퍼하며 지낸다.

특히 요즘은 아주 사소한 불행도 큰 불행으로 여겨서, 사소한 불행=절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쌍꺼풀 수술도 그런 추세) 여전히 행복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불문하는 유행인 듯.

예전 같았으면 연예인들이나 하던 수술.

사소한 불행은 등 뒤로 넘겨버리자. 버틸수는 없을지라도 차라리 겸손의 도구로는 너무나 좋은 재료이니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 (사도 바울의 간질병)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지도 200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온 국민들은 그 사건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거 같다. 며칠전에는 퇴거를 앞둔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하였다.(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동대문구 장안동. 한겨레뉴스2014.10.31.)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도 한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세월이 길지 못하다는 것이 흠이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심지어 그들은 전혀 행복할거 같지 않는 삶을 살았을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강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전투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일부러 세속적인 행복을 악하게 여긴적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삶이 풍요롭고 다복한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보장된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포기 의사를 확고하게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하였다.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

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빌3:8)

물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겼다.(왜냐면 그는 스테반을 죽이는데 주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을 잘 가꾸고 자녀를 잘 키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전도하여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다.

다만 성경은 세속적인 일에 치심하는 것을 악하게 여긴다. 만약 사회생활에 치심하여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곧 불행하게 된다. 만약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만 치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이 네가지의 삶을 모두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 사실은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틈이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천국지향적인 삶이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간다.

우리 가치의 중심이 천국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저 멀리에 있는것도 아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위에 초월하여 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친근히 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

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살아가면 참으로 행복할터인데, 우리의 현실은 좀 더 힘겹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거의 날마다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순간 순간 욕심을 자극하는 거짓말들을 분별해내야 하며, 재물이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마귀의 공격은 실제적이다.

게다가 마귀의 공격 때문에 가장 자주 망가지는 울타리가 사람의 자유의지이다. 울타리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울타리의 주인이 스스로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영적 훈련이 없으면 계속해서 망가뜨린다.

성경은 천국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안심이 되는 말씀과 우려가 되는 말씀을 동시에 들려준다. 이 말은 누군가는 훈련이 되지 않았던지, 방심하던지 하면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환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 10:16)

17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젓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막13:17)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16:33)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큰 고통에 처하기도 한다. 설령 그런다 해도 결코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환란의 기간은 정해졌으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역설적인 삶으로 비쳐지기도 하며, 이웃을 돌보는

모습 때문에 선한 사람들로 비쳐지기도 한다.

천국의 비밀을 더 맛본 자들은 더 큰 가치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살아간다.

우선은 천국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틈만 있으면 천국에 보물을 쌓는다. 왜냐면 그 보물은 사라지지 않고 가장 안전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6:20)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큰 상을 받을만한 일이 된다.

4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막9:41)

또 하늘에 복을 쌓는 일이 또 있다. 이는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참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알고 그에게 협조하는 자들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

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10:41)

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눅6:22-23)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이

요 복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막10:29-30)

이 세상의 삶. 성경에는 행복을 누리며 보람을 거두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까지 유산으로 물려주는 삶에 대한 지혜가 담겨있다. 아멘.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11:26)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전 15:19)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12:2)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